

唯物論과 觀念論에 對하야

—金泰秀氏에게—

宋在洪

一, 序 言

A

『唯物論과 觀念論은 兩 階級の 이데올로기의 表現 體다. 卽 觀念論은 直接 生産 過程 生産의 實踐으로부터 分離한 階級の 그것이며 此에 反하야 唯物論은 生産 階級 卽 그 本質上 實踐的 階級の 世界觀의 表現이다. 觀念論에 잇서서는 理論的 活動 思想의 活動만이 現實的 人間 活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맑스 主義者는 實踐的 行爲만이 現實人間 活動으로 본다』(더포린)

『有産者 社會의 — 사라서 資本主義 社會의 合理的 批判— 唯物 辯證法에 依해서 資本主義 社會主義 —××××에까지 揚棄 식혀야할 것이며, 同時에 有産者 歷史觀은 唯物史觀에까지 揚棄 식혀야 할 것이다.(□本相夫)

그럼으로 나는 日前에 典型的, 觀念論者 韓稚振 排戰에 應하엿으며 또한 언재던지 彼 等の 觀念論을 唯物論의 武器로서 克服 식힐 것을 自誓한 바 잇섯다.

B

나의 筆鋒은 半唯物論者 金泰秀氏에게도 向치 안니치 못한다. 氏는 半唯物論者라면 설다고 呼訴한다. 그러나 依然히 半唯物論의 領域에서 버서 나지 못함에야 엇지하랴.

半唯物論者 金泰秀氏! 이 名啣은 讀者諸氏의 힘 안들고 記憶할 수 잇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氏가 半唯物論者로서 自處하게 된 過程을 歷史적으로 考察하야 보자.

氏의 反唯物論者라는 이름은 氏가 反 柳葉氏 글월 쓴 後에 李友狄氏에게서 엇게 되엿다. 그러나 氏의 正體를 完全히 暴露 식히기는 氏의 『生産機關과 慾望』이라는 것을 駁한 李友狄氏의 『思考의 先行者로서 實踐』이라는 論文이다. 自己의 正體가 餘地업시 暴露된 氏는 그래도 自尊心이 許諾치 안엿

던지 또 다시 本誌 十二月號에 『理論의 實踐的 根據』라는 聲明書 갖든 것을 發表하여 自己도 唯物論者라고 李友狄氏에게 抗議하였다. 그러나 氏의 理論은 依然히 過去 半物論을 延長함에 不過하다. 理論답지 못한 理論! 辨明 못되 는辨明! 얼마나 氏의 俗學者的 態度를 廣告하였느냐.

C

그러면 우리는 氏의 今番 論文에 그 무엇이라 말하였는가 보자.

(1) 氏는 自己의 理論이 李友狄氏의 理論과 같다고 哀願하였다.(엇지 그러리요!)

(2) 氏는 河上氏의 理論을 排擊하고 福本氏의 理論을 支[持]한다고 聲明하였다.(거짓말이다!)

(3) 氏는 福本氏와 河上氏의 『慾望 問題에 對하여 論爭하것을 引用하고 漠然히 終局的 決定方으로서 生産力인 것을 暗示하였다.(아즉 研究를 못한 모양이다!)

(4) 氏는 李友狄氏의 말을 從하여 思考의 先行으로서 實踐을 主張하였다.(盲目的 追隨일 뿐이다. 그러나 可尙한 일이다!)

(5) 氏는 柳葉氏에 對한 글 中에 『慾望』이라는 말을 觀念的으로 한 것이 아니라 辨明하였다. (辨明 못되는 辨明이다!)

나는 只今부터 氏의 觀念論의 秘密을 暴露 식혀보겠다. 그러나 미리 約束하여두거니와 窮途에 臨한 氏를 甚히는 追及치 안으려한다. 다만 허매이는 讀者를 爲하여 氏의 理論이 李友狄氏와 갓지 안타는 것과 氏의 理論은 氏의 支持한다는 福本氏의 그것과 正反對인 同時에 氏의 排擊한다는 河上博士의 理論과 一致한 것을 指摘할 것이며, 唯物史觀을 研究한다는 氏를 爲하여 氏의 아즉 把握치 못한 生産力の 終局的 決定 要因을 闡明함으로써 滿足하려 한다.

二, 觀念論과 唯物論

諸氏의 生産力과 慾望 問題 把握面面

A. 金泰秀氏

『그러나 말하면 맨 처음에 人間의 欲求가 生産을 始作하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人으로 하여금 生産을 行하게 하였다 말인가』

『만일 人間이 살려는 欲求가 업섯다 하면 人間은 社會的으로 生産을 할 必要가 업지 한흔가? 그 사람은 이 社會에서 —生産 關係를 매저야 사는 이 社會에서—그림자가 업서 지고 말 것이다.』『人間에게는 確實히 慾望이 잇다』『朝鮮之光』 要約하면 人間의 欲求가 生産을 始作 하였다는 것이다.

B. 河上博士

氏は 말하였다.

『人間 進歩에 伴하여— 一定의 物質的 條件은 모든 活動의 前提인 故로—그의 物質的 慾望은 漸次 增加한다. 人口는 不絶히 增加하고 物質的 慾望도 不絶히 增加한다. 故로 物質的 生産力의 不絶의 增加는 必然하고 하는 意志를 가진 人間의 根本的 要求이다.』『유물사관연』

要約하면 生産力의 發展 要因은 人口 增加와 人間의 慾望에 있다는 것이다.

C. 福本和夫氏

氏は 河上博士의 生産力 發展의 要因이 된다는 『慾望』과 人口 增加說을 痛擊한 後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勿論 人口 增加가 生産力 發展을 식한다고 보는 것이 틀린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들의 增加가 또한 生産力 發展(前時代의)의 結果인 것을 認識치 못하는 곳에 博士의 決定的 誤謬가 있다』

그리고 氏は 다시 앞쓰의 말을 引用하여 一層 더 明確히 하였다.

『文化의 原始에 있어서 獲得된 勞動의 生産力도 僅少하였다. 그러나 또한 慾望도 僅少하였다. 慾望은 그것을 滿足시키는 手段과 같이 또한 手段의 爲에 發展한다』『社會構成併變 革의 過程』

要約하면 人口增加와 慾望의 增加는 生産力 發展의 結果라는 것이다.

D. 李友狄氏

氏는 金泰秀氏의 慾望이 生産을 始作하게 하였다는 말을 排擊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人間은 結코 生産하기 前에 慾望이 잇지 안함스며, 行動하기 前에 思考가 잇지 안했다. 왜그러냐 하면 生産하기 前, 行動하기 前에는 慾望도 思考도 잇출 수 업는 것이다. 人間이라는 組織된 物質은 彼人間 同士 끼리 彼等의 意思로부터 獨立한 一定한 關係를 지어서 다른 組織된 物質 — 自然과 交涉하는 過程에서만 思考하고 慾望하는 것이다』

또 다시 氏は 말하였다.

『그런데 慾望의 增加가 生産力發展을 決定함에 있어서 全然 無作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늘 慾望의 增加의 決定的 要因으로서 生産力을 보지 안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慾望과 生産이 서로 交互 作用은 하지만은 慾望의 源泉은 언제던지 生産力인 것이다』『朝鮮之光』 要約하면 生産이 잇기 前에는 慾望이 잇출 수 업고 同時에 生産力이 慾望의 源泉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以上에서 金泰秀氏와 河上 博士의 理論이 一致한 것과 福本氏와 李友狄氏의 理論이 一致한 것을 發見할 수 있다. 同時에 었던 것이

唯物論이며, 었던 것이 觀念論인 것도 잘 알 수 잇을것이다. 卽 生産力의 要因이 慾望이라는 것은 觀念論인 것이며, 慾望의 源泉이 生産力이란 것은 唯物論일 것이다.

卑怯하다! 金泰秀氏여 氏는 왜 自己 清算을 恣意히 하기 前에 過去의 觀念論을 固執하고 辨明함으로써 滿足 하려하는가?

『사람은 誤謬에 빠지지 않는 것이 賢明한 일이 아니라. 誤謬에 빠져서 잘 反省할 줄 아는 것이 賢明한 일이다』

이것은 일찍이 李友狄氏가 氏에게 忠告 하엿던것이다.

三, 生産力의 終局的 決定 要因

A

우리는 以上에서 生産力發展 要因이 觀念論者들의 말하는 慾望에 잇지 안타는 것은 잘 알엿다. 그러면 生産力發展의 終局的 決定 要因이 무엇인것을 闡明히 하는것이 엿지 無意味한 일이라.

말쓰는 말하엿다.

『勞働의 生産力은 여러 가지 事實에 依하여 決定된다. 勞働者의 熟練의 平均程度, 科學과 伴하여 그의 技術的 應用의 發達段階, 生産 過程의 社會組織, 生産 手段의 範圍와 그의 作用 能力에 依하여 또는 自然 關係에 依하여』

『生産力의 그의 發展은 終局에 잇서서는 언제든지 生産에 從事하는 勞働의 社會的 性質에 社會 內의 分業에 精神的 勞働 自然科學의 發達에 歸한다.

』

여기서 우리는 以上の 말에 對하여 福本氏의 말한 바를 引用하여 보자.

『여기서의 考察의 視角 如何는 「生産力의 그 외 發展」이 무엇을 指示하엿는가를 보면 알 수 잇다. 그것은 이러하다. 「하나의 産業 部門에 잇서서 利潤率의 增進은 他의 産業 部門에 잇서서 勞働 生産力 發達の 結果다」 라는 考察에 잇서서 生産力의 發展인 것이다』

그럼으로 一時代의 生産力은 이들의 諸 要因에 決定되는 것은 事實이지 만은 이들의 提要因은 또한 그 以前의 生産力에 依하여 決定된 것이다. 卽 이들의 諸 要因은 生産力에 對하여 決定的 要因이 못되는 것은 事實이다.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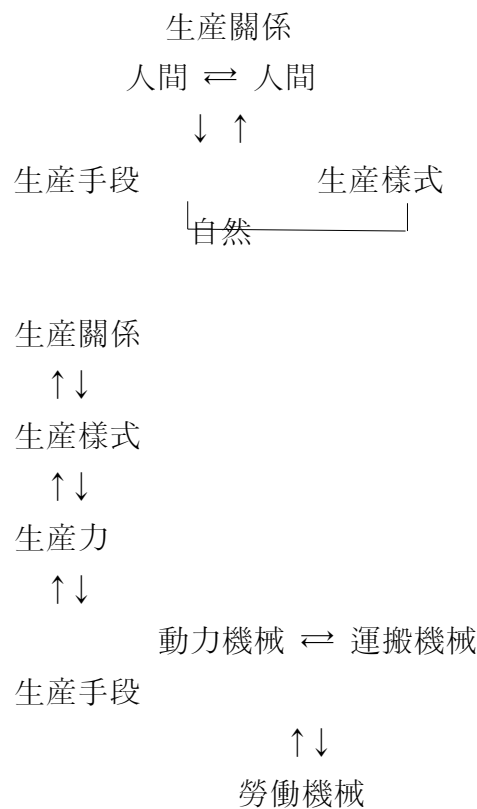
그러면 眞正한 生産力의 決定的 要因은 무엇인가? 우리는 곳 生産 手段이 잇을 쥔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卽 가장 決定的 要因은 技術— 라는 것까지 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말쓰는 말하엿다.

『자 一원은 自然的 技術—(技術學)의 歷史에 卽 動物의 生活에 對한 生

産 用具로서 動植物 機關의 形成에 興味를 導出하였다. 모든 特殊的 社會形態의 物質的 基礎인 社會形態의 物質的 基礎인 社會人의 生産 機關의 形成史도 갖튼 注意에 等價할 수 있지 않을까…….『텍놀키』는 人間의 自然에 對한 能動的인 行動——即 彼の 生活의 直接的 生産 過程을 闡明히 한다』

그러면 簡單하나 以上の 湄쓰의 말로서 生産力의 가장 決定的 要因이 텍놀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 一層 明瞭히 하기 爲하여 福本氏의 生産 過程의 表式을 引用 하겠다.



(以上 社會 構成並 變革 過程에 依함)

四, 決論에 臨하야

나는 金泰秀가 結코 反動化 하야 가는 우리의 敵이 안닌 것을 잘 안다. 明敏한 頭腦의 所有者인 氏는 鬭爭 過程하는 동안에 그 可憎한 觀念論의 領域에서 버서 나서 훌륭히 戰鬪的 唯物論을 把握하고 우리의 同志로서 낮하 날 [나타날] 것을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깃부다.

그러면 氏여!우 리는 自重합시다.
그리고 나는 쁘트르 다음과 가튼 말을 들인다.

『우리는 頭腦의 中에 存在한 客觀에 拘束되어서는 안된다. 具體的 客體로 把握하는 것이 必要하다.』라고.

1927. 12. 15□□□